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사우디아라비아

Kingdom of Saudi Arabia

2023년 11월 13일 | 조사역(G3) 동은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2,150 천 km ² 	인구 3,282만 명 (2023 ^f) 	정치체제 이슬람군주정 (정교일치의 국왕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GDP 10,694억 달러 (2023 ^f) 	1인당GDP 32,586달러 (2023 ^f) 	통화단위 Saudi Arabian Riyal(SAR) 	환율(U\$기준) 3.75 

-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한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요르단·이라크·쿠웨이트, 동쪽으로는 아랍에미리트·카타르, 남쪽으로는 오만·예멘과 접경하고 있음
- 세계 2위의 원유 확인 매장량과 세계 1위의 원유 수출국으로 세계 원유 수급과 가격을 주도하는 스윙 프로듀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역내에서는 수니파 이슬람의 맹주국으로 중동 지역 패권을 두고 시아파인 이란과 대립하고 있음.
- 2016년 경제개혁 정책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한 이후 산업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이자 투자 규모가 5,000억 달러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인 '네옴'을 통해 중동의 랜드마크로 도약하고자 하고 있음.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연로한 살만 국왕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총리에 임명되어 왕세자의 대내외적인 입지가 더욱 강화됨.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10. 16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문화협력협정(1975년), 경제기술협력협정(1975년), 항공협정(1984년), 항공운수소득면제협정(1990년), 투자협력협정(2002년), 투자보호협정(2003년),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약(2008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2012년), 국방협력협정(2014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18), 사증발급간소화양해각서('19), 해상운송협력협정('22)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3,301,896	3,324,694	4,865,150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철강판
수입	15,979,621	24,271,348	41,640,268	원유, 석유제품, 정밀화학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누계,총투자기준) 234건, 3,659,982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0.8	-4.3	3.9	8.7	0.8
소비자물가상승률	-2.1	3.4	3.1	2.5	2.5
재정수지/GDP	-4.2	-10.7	-2.3	2.5	-0.3

자료: IMF, EIU

2023년 경제성장률은 원유 감산에 따른 석유 부문의 위축으로 인해 1% 미만에 그칠 전망

-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원유 감산*으로 인한 석유 부문의 위축이 경제 전반의 저성장으로 이어짐. 석유 부문은 사우디 전체 GDP의 약 38%를 차지하며, OPEC+의 4월 감산 결정은 연말 성장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FitchSolutions).

* 2023년 4월 OPEC+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것에 대응하여 생산 쿼터 삭감을 발표, 6월부터 시행 중임. 이는 2022년 10월에 발표된 감산 결정과 함께 2023년 동안 일평균 약 100만 배럴의 산유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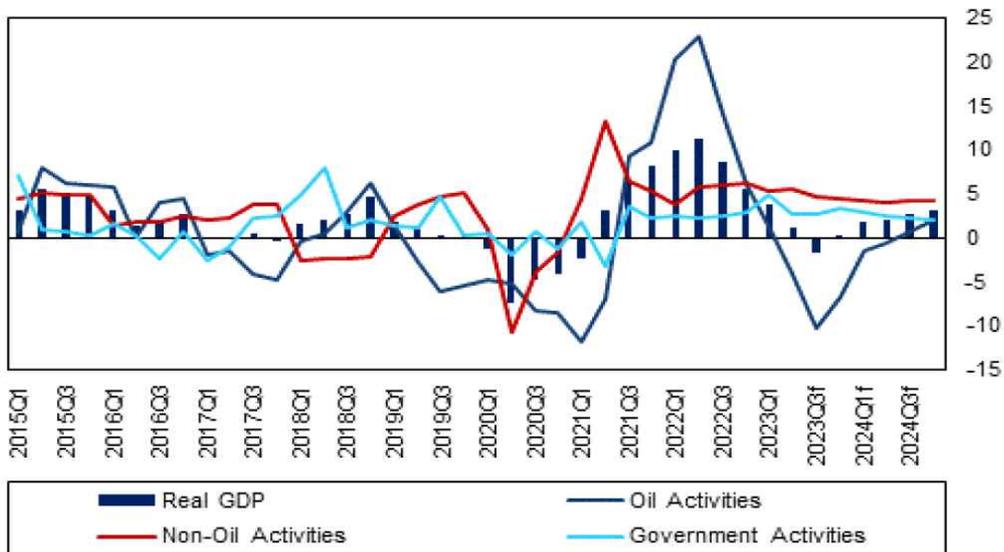
- 사우디아라비아의 일평균 산유량은 2022년 1,060만 배럴에서 2023년에는 약 960만 배럴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에는 940만 배럴로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부문은 2023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4%, -4.3% 성장하는 데 그쳤음.
- 반면, 비석유 부문은 2023년에도 견조한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여 2022년(4.8%)보다 약간 높은 성장률(4.9%)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IMF).
- 비석유 부문은 투자 및 가계지출 증가로 인해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특히 관광 및 물류 부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자본지출에 힘입은 것으로 보임.
- 국가경제에서 석유 부문의 비중을 축소하고 비석유 부문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경제 전환은 비교적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데, 2016년 'Saudi Vision 2030' 개혁 의제의 선언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수준의 경제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IMF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악영향을 받았던 대외 및 재정 완충장치를 경제 다각화를 통해 재건하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여성 노동력 참여율이 2030년 목표치 30%를 돌파하고, 정부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국내경제

[그림 1] 사우디아라비아의 분기별 및 부문별(석유/비석유/공공 부문) 경제성장률 추이(%)

Non-Oil Economy Resilient While Oil Economy Contracts

Saudi Arabia - Quarterly Real GDP Growth, % y-o-y



자료: FitchSolutions

2024년에는 원유 감산 해제, 투자 지속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3% 안팎을 회복할 전망

- IMF는 World Economic Outlook(2023.10월)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가 원유 감산 해제 전망과 국제유가 상승 추세, 정부의 투자 지속 등에 힘입어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현저히 개선된 2.8%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 해제 여부에 대한 전망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동으로 인해 분석기관마다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음. 한편, 비석유 분야의 견조한 성장은 내년에도 이어져 플러스 경제성장 달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됨.
- (FitchSolutions) 원유 감산의 단계적 축소가 경제성장 재개로 이어짐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2024년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2023년 배럴당 평균 80.0달러였던 유가가 2024년 83.0달러로 소폭 상승해도 투자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원유 감산은 2024년 6월 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후 산유량은 점차 증가하여 2025년 1월에 다시 2023년 7월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기관별 2023~24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IMF	EIU	FitchSolutions
2023년	0.8	0.1	0.8
2024년	2.8	2.9	2.4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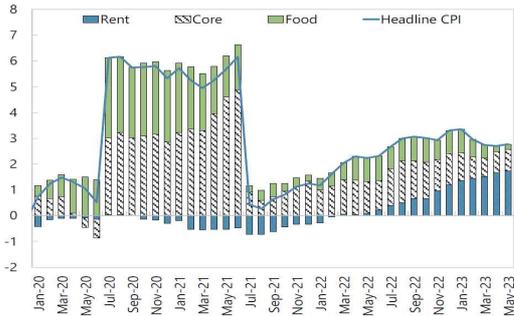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과 동일한 2.5%를 기록할 전망

-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료 및 전력 보조금 지급, 가격 상한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정책과 고정환율제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억제 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연평균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월별 물가상승률은 2023년 초 3.4%로 상승했다 기저효과에 힘입어 5월 2.8%로 다시 하락한 뒤 8월에는 2.0%로 하향 안정되었음. 한편, 임대료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은 운송비 및 식료품 가격의 하락으로 상쇄되었음.
-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2022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했지만,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해외 노동자 공급과 노동 참여 증가 등 평균 임금이 억제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적이었음.

[그림 2]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영향(%)

CPI Inf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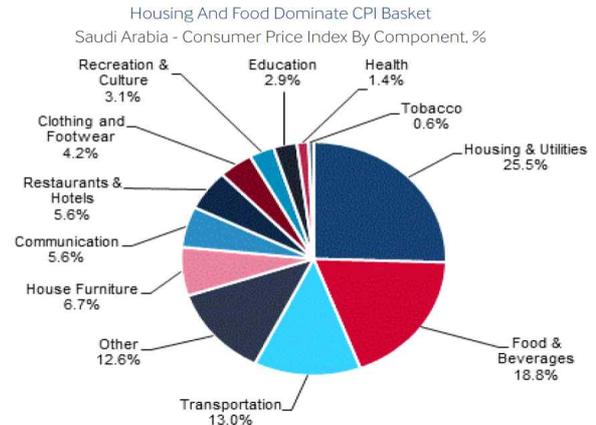
(Y-o-y percent change or contribution)



Sources: World Economic Outlook, GASTAT, country authorities and IMF staff calculations.

자료: IMF WEO

[그림 3]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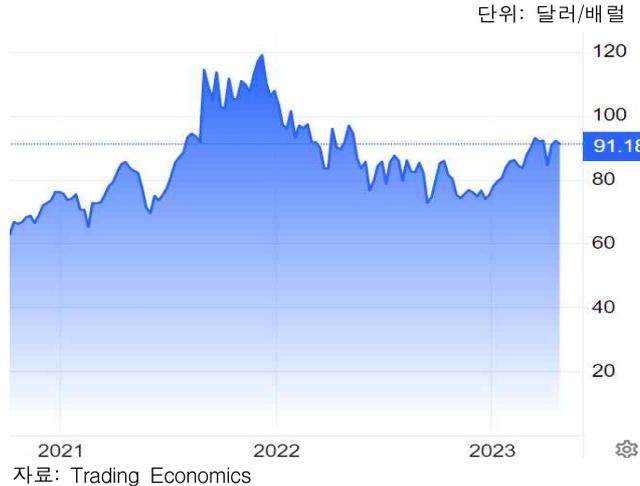
자료: FitchSolutions

2024년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보조금 등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 지속으로 2023년과 유사한 2%대 초반으로 안정될 전망

-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 최근의 디젤유 가격 인상, 1년의 시차를 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반영한 상향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2023년과 비슷한 2%대 초반 수준으로 억제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전망은 보조금 유지 및 특정 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 시행 등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그리고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둔화 전망에 기반하고 있음. Saudi Vision 2030 추진에 따른 노동시장 수요 증가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미국의 장기 평균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5bp 포인트 인상키로 한 미 연준의 결정에 따라 기준금리를 5.75%에서 6.0%로 인상했음. 다만, 향후 몇 년 동안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역시 이를 따라 기준금리를 점차 내릴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

[그림 4] 국제유가 추이(브렌트유 기준, 2021.1월~2023.10월)



2023년 재정수지는 석유 부문 수입의 감소로 인해 적자로 전환될 전망

- 2023년 재정수지는 석유 부문의 수입(收入) 감소로 인해 GDP의 0.3%의 적자가 전망됨. 이는 2022년 중기 예산안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공공투자 지출이 오히려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결과임. 특히 1분기 중 재정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배럴당 평균 유가 수준은 약 95달러로, 2023년 전체의 배럴당 평균 유가 예상치인 약 105달러보다 10달러 정도 낮음.
- 다만, 2024년 재정수지는 재정수입 증가 전망 및 정부의 엄격한 재정지출 관리로 인해 GDP 대비 3% 안팎의 흑자 전환이 기대됨.
- IMF 등 주요 기관은 2024년 국제유가가 2023년 대비 하락하되, 사우디아라비아의 균형재정 유가(배럴당 79.7달러, IMF 기준)를 상회하는 배럴당 85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5] 주요 기관별 국제유가 및 재정수지 전망(2023~24년)

단위: 달러/배럴, %

구 분	IMF	FitchSolutions	EIU	
2023년	국제유가	78	80	83.2
	균형재정 유가		85.8	
	재정수지/GDP	-0.3	-2.2	-0.8
2024년	국제유가		83	81.5
	균형재정 유가		79.7	
	재정수지/GDP	0.3	-1.7	1.0

* 균형재정 유가는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2023.10월) 참고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 상 수 지	38,230	-22,814	44,324	150,753	33,711
경상수지/GDP	4.6	-3.1	5.1	13.6	3.2
상 품 수 지	121,336	47,944	136,464	234,688	119,124
상 품 수 출	261,617	173,864	276,198	410,676	323,545
상 품 수 입	140,281	125,920	139,735	175,989	204,421
외 환 보 유 액	488,245	441,178	429,497	434,880	428,204
총 외 채	186,345	237,928	284,544	291,591	293,024
총외채잔액/GDP	22.2	32.4	32.8	26.3	27.4
D.S.R.	6.6	10.0	8.8	6.6	8.3

자료: IMF, EIU

2023년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 증가와 석유 수출 감소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유가 하락과 감산으로 인한 석유 수출액 감소의 결과 2022년 13.6%에서 2023년 3.2%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석유 부문은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하여 경상수지 흑자의 가장 큰 기반임. 비석유 수출은 석유 수출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Saudi Vision 2030에서 정한 목표수준인 비석유 부문 수출의 GDP 비중 50%에는 미치지 못함.
- GDP의 25% 이상인 국내총투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 및 기술 수입은 상품수입과 서비스수입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노동인력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국 앞 송금은 이전소득수지 적자 지속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에 따르면 2023년 1~2분기 원유 수출액은 4,735억 리얄로 전년 동기(6,301억 리얄) 대비 33% 감소하였으며, IMF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일평균 원유 수출규모가 2022년 10.6백만 배럴에서 2023년 10.1백만 배럴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IMF는 World Economic Outlook(2023.10월)에서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상수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상품수출 증가, 관광산업의 견조한 성장, 투자활동의 둔화로 인한 수입 증가세 완화 등에 따라 흑자폭이 GDP 대비 5.4%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대외거래

[표 6] 주요 기관별 사우디아라비아 경상수지 전망(2023~24년)

구 분		IMF WEO (2023.10월)	FitchSolutions (2023.8월)	EIU (2023.10월)
경상수지/GDP(%)	2023년	5.9	6.8	3.2
	2024년	5.4	7.0	2.6

※ ()는 기관별 전망치 발표 시기

[표 7] 사우디아라비아 경상수지 구성 항목별 전망(2023~24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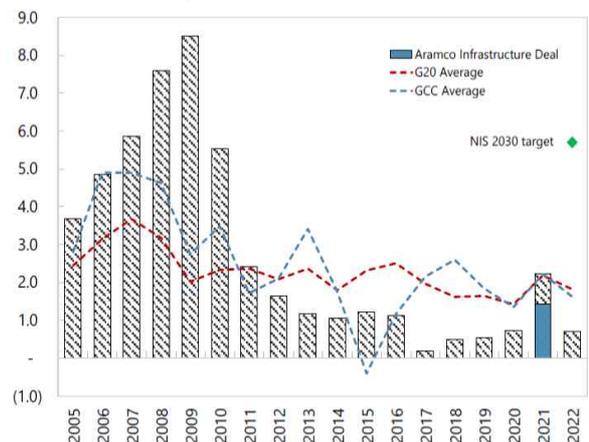
구 분	2023	2024 ^f	전년대비 증감
경상수지	33,711	28,237	-5,474
상품수지	119,124	114,395	-4,729
수출	323,545	344,368	
수입	204,421	229,973	
서비스수지	-51,024	-54,996	-3,972
수출	40,388	43,821	
수입	91,412	98,817	
본원소득수지	9,323	11,677	2,353
수취	28,983	31,563	
지급	19,660	19,886	
이전소득수지	-43,713	-42,839	874
수취	0	0	
지급	43,713	42,839	

자료: EIU

2023년 FDI 유입액은 전년과 비슷하게 저조하여 GDP의 0.7%에 그칠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의 FDI 유입액은 2017년부터 크게 줄어 이후 2021년을 제외하고 GDP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정부는 경제 다각화 목표의 달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향후 수년 간 FDI 유입이 필요한 상황임. FDI 유입은 특히 기초 산업 및 NEOM 메가시티, Qiddiya, Amaala 등 메가 프로젝트 개발의 재원으로 매우 중요할 것임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FDI 유입 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소 타다울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하고 필요 운용자산 기준을 낮추는 한편, NEOM 펀드와 같은 자본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펀드의 상장을 발표함.

[그림 5] 사우디아라비아 GDP 대비 FDI 유입액(%)



자료: IMF

외채상환능력

D.S.R.은 2022년 6.6%에서 2023년 8.3%로 상승할 전망이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

- 외채원리금 상환액이 증가(309억 달러 → 326억 달러)하고, 감소에 따른 원유 수출 감소로 총수출이 감소(4,690억 달러 → 3,929억 달러)함에 따라 2023년 D.S.R.은 전년(6.6%) 대비 상승한 8.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임.

2023년 말 월평균수입액의 16개월분으로 전망되는 외환보유액과 막대한 국부펀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능력은 우수한 편

- 사우디아라비아의 2023년 말 외환보유액 규모는 4,282억 달러로 전망되며, 이는 2023년 월평균수입액 전망치인 109.4억 달러의 12개월분에 달하여 외채상환능력은 우수한 편임.
- 그러나 총외채잔액 증가(2,916억 달러 → 2,930억 달러)와 원유 수출 감소에 따른 총수출 감소(-16.2%)로 총외채잔액/총수출 비율은 2022년 62.2%에서 2023년 74.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규모 전망치는 7,770억 달러로 총외채잔액 전망치(2,930억 달러)의 약 2.7배 및 GDP 전망치(1조 694억 달러)의 약 0.7배 수준이며, 이처럼 막대한 국부펀드의 존재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및 외채상환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인 국부펀드인 PIF(Public Investment Fund)의 규모는 7,000억 달러로, 단일 국부펀드 기준 전 세계 6위* 수준임.

* 2023년 3월 말 기준 PIF 규모는 PIF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국부펀드 순위는 2023.10.23.자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자료 기준임.

[표 8] 전 세계 상위 10대 국부펀드(억 달러)

순위	펀드명	규모	순위	펀드명	규모
1	Norway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14,777	6	Public Investment Fund (사우디)	7,766
2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13,508	7	GIC Private Limited (싱가포르)	7,700
3	SAFE Investment Company(중국)	10,196	8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Investment Portfolio	5,142
4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8,530	9	Temasek Holdings(싱가포르)	4,922
5	Kuwait Investment Authority	8,030	10	Qatar Investment Authority	4,750

자료: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조회일자: 2023.10.23.)

구조적취약성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등 대외 변수에 취약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로 2016년부터 탈석유 산업다각화 정책인 'Saudi Vision 2030'을 추진하고 있으나,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사우디 통계청 발표 기준, 2022년 GDP의 약 36%, 상품수출의 56% 차지)가 여전히 높아 국가경제가 국제유가 및 원유 국제수요 변동 등 대외변수에 취약함.
-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 급락 및 원유 국제수요 감소로 마이너스 경제성장(-4.3%)과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글로벌 실물경기 회복에 힘입어 플러스 경제성장(3.9%) 회복 및 경상수지 흑자(GDP의 5.1%)를 기록하였음.

성장잠재력

신재생에너지, 특히 수소공급망 개발을 적극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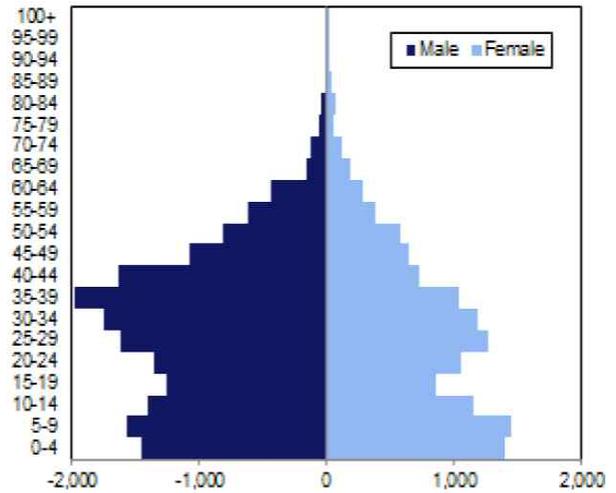
-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가격의 변동성 증가로 인한 재정 불안정 등 석유 수출에의 과도한 의존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탈석유 및 산업 다각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재생에너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중·단기 목표 제시, ▲유관 분야 민·관 파트너십 증진, ▲FDI 유입 진작, ▲관련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 ▲기술 연구·개발 강화, ▲법령 및 제도 개혁, ▲신규 포괄 전략 입안 등을 추진해 옴.
- 사우디아라비아는 미래 친환경 도시인 네옴 시티 프로젝트에 자국 전력 기업 ACWA POWER를 주축으로 하는 그린 수소 생산설비 건설 계획을 포함시켰음. 동 계획에 의하면 ACWA Power와 미국 Air Products & Chemicals는 태양광 및 풍력으로 생산된 4GW 규모의 전력을 사용하여 2025년까지 하루 650톤의 그린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수소 산업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며, 대표적으로 총 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공장인 NEOM Helios 건설을 추진(2025년 완공 예정)하고 있음.
- 'Helios Green Fuels'로 명명된 동 프로젝트는 Air Products(미국), ACWA Power(사우디), 네옴 신도시가 각각 동일한 지분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 시 하루 650톤의 그린 수소와 매년 120만 톤의 그린 암모니아가 생산될 예정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린 수소 생산에서 경제성 확보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태양광 및 풍력 발전 용이)을 지니고 있으며, 잠재적 양대 수소 시장으로 꼽히는 유럽과 동아시아 사이에 위치하여 수소 수출에도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아울러 석유 및 천연가스의 오랜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관련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도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동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인적 자원의 활용 가능성도 높음.

성장잠재력

인구의 높은 젊은층 비중

-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십 년간 급속한 인구 증가를 겪으며 청년층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상승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 약 25%가 15세 미만이고, 35세 미만의 비중은 52.3%로 결혼 적령기 청년층 비중이 높으며, 합계출산율¹⁾은 2.14명임.
- IHS Markit은 사우디아라비아 인구의 높은 젊은층 비중은 성장 및 변화를 추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에 중요한 성장동력이자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함. 다만, 충분한 일자리 마련 및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함.

[그림 6] 사우디아라비아 인구 구성(백만 명)



출처: Worldbank

'Saudi Vision 2030'의 핵심 프로젝트 '네옴'을 통한 중동의 랜드마크로의 도약 가능성

- 네옴(Neom) 프로젝트는 탈석유 산업다각화를 위한 'Saudi Vision 2030'의 핵심 프로젝트인 저탄소 스마트 시티 건설 계획임. 투자규모가 5,000억 달러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인 네옴 프로젝트의 핵심은 170km의 직선 도시 '더 라인'(The Line), 해상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Oxagon), 친환경 산악 관광 단지 '트로제나'(Trogana), 홍해에 위치한 고급 휴양지 '신달라' 등의 건설로, 홍해 인근 사막 26,500km² 부지에 조성될 예정임.
- 2022년 7월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네옴 프로젝트의 일부인 '더 라인' 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1단계 사업에 2030년까지 3,2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2022년 9월 기초공사에 들어간 '더 라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을 가로질러 길이 170km·폭 200m·높이 500m의 유리벽 구조물로 지어질 예정으로, 완공 시 약 900만 명의 거주자를 수용하도록 설계됨.
- 주거, 소매 및 레저 지역은 물론 학교와 공원이 포함될 예정이며, 지상에는 자동차 대신 시민과 보행로를 위한 녹지가 조성되고 지하에는 고속철도와 인프라를 위한 2개의 다른 층이 만들어질 예정임.

1)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정책성과

Saudi Vision 2030을 통한 비석유 부문 육성 및 도시 개발

- Saudi Vision 2030 경제개발계획은 국가경제에서 비석유 부문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이로 인해 비석유 부문이 사우디아라비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서 2032년까지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①NEOM, Qiddiya, Amaala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및 소규모 주거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출, ②외국인투자 증가에 힘입은 국내 산업 부문의 꾸준한 확장을 통한 수입 비중 감소 및 국내 생산제품에 대한 가계지출 증가, ③관광,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하이엔드 기술 등 저변에서 새로운 영역의 개발, ④합병, 인수, 분할 및 상장을 통한 지속적인 통합과 비용 절감으로 경제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 증대 및 국가의 자금 공급원 다양화
- 아울러 Saudi Vision 2030은 ①세계 15대 경제국 중 하나로 성장, ②세계 100대 살기 좋은 도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 포함, ③35개 이상의 메가 프로젝트 건설 등의 목표도 추진함.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의 예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을 지을 계획임.

적극적인 현지화(Saudization) 정책 실시

- 2021년 2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정보통신(IT), 금융,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우량 기업들의 중동 본부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HQ' 정책을 발표하였음. 동 정책은 중동 지역 본부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한 기업에게 50년 간 법인소득세 면제, 사우디인 고용 할당량 적용 면제, 미래 규제로부터의 보호 보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2024년부터는 자국 내에 중동 지역 본부를 두지 않은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함.
- 동 정책의 영향으로 2021년 기준 44개 글로벌 기업이 지역 본부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전한 것으로 집계됨.
-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는 주요 국영기업 주도의 다양한 현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국영 석유·천연가스 회사 Aramco는 IKTV(In Kingdom Total Value Add)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까지 구매 제품의 70%를 현지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SEC)은 BENA(Build & Employ National Abilities)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프로젝트 입찰 심사항목에 현지 생산제품의 구매 비율, 사우디인 의무 고용제도 준수 여부 외에 현지인 기술교육 여부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현지화 정책을 추진 중임.

정치안정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총리로서 사실상의 군주 역할

- 사우디아라비아는 정교일치의 국왕 중심제 국가로, 국왕이 입법·사법·행정 3권을 행사하며 종교의 수장을 겸하고 있음. 국왕이 전원을 임명하는 1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정자문회의(우리나라의 국회와 비슷한 역할 수행)에서 정책 심의·자문 및 법률 제·개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국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함.
- 1935년생인 살만 국왕은 2015년 1월 즉위 당시 이미 79세의 고령으로 건강 이상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연로한 살만 국왕을 대신하여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살만 국왕 유고 시 왕세자의 왕위 계승이 유력함. 왕세자는 1985년생으로 현재 30대인 만큼 왕위 계승 시 장기 집권이 전망됨.
- 2022년 9월 살만 국왕은 칙령을 통해 당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맡고 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신임 총리로 임명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제3대 파이살 국왕 이래 총리직은 국왕이 겸직하는 것이 전통이었으나, 이번에 왕세자가 국왕을 대신하여 총리를 맡음으로써 대외적으로 정상회담 의장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됨.

자유화는 아직도 부분적 수준, 절대 왕정에 위협이 되는 세력 견제는 여전

- 왕세자로 책봉된 이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등에 업고 급진적인 사회-경제적 변혁을 추진해 옴. 그간 경제활동이 전무하였던 여성의 경제활동도 늘어 최근에는 여성 인구의 20%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운전을 하는 여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여성 고용 확대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대중의 정치 참여가 여전히 억제되고 있으며 정부와 대립하는 반정부 혹은 야권 세력의 정치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절대 왕정은 오히려 더욱 강력해지고 있음. 아울러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고지 살해 사건을 계기로 왕정에 대한 비판 세력은 철저히 억압되고 있음.
- 지난해 8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2명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왕정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장기 수감되었음. Freedom House에 따르면 사우디 시민정치권리연합(Saudi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sociation, ACPRA)의 창립 멤버, 해외로 도피한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이 결성한 국가의회당(National Assembly Party, NAAS)들의 회원들이 징역을 선고받거나 의문의 살해를 당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 정치 체제에 비판을 제기하는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탄압은 여전함.

사회안정

언론의 자유는 전 세계 최하위권 수준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가 왕세자로 책봉된 2017년 6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인권활동가·기자들에 대한 구금, 고문 또는 징역이 가해진 사례가 증가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특히 2018년 10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터키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피살된 사건의 배후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지목된 바 있음.
- GCC 국가들의 언론자유지수*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나,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중에서도 특히 낮은 수준으로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2022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180개국 중 16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음.

* GCC 국가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2022년): 카타르 119위, 아랍에미리트 138위, 쿠웨이트 158위, 오만 163위, 사우디아라비아 166위, 바레인 167위

2022년 부패인식지수는 전체 54위, GCC 국가 중 3위를 기록

-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2022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와 점수는 전년보다 두 단계 하락한 54위(총 180개국 대상) 및 51점으로 아랍에미리트(27위, 67점), 카타르(40위, 58점)에 이어 GCC 국가 중 3위를 기록함.

※ 오만(69위, 44점), 바레인(69위, 44점), 쿠웨이트(77위, 42점)

경제 다각화 및 재정 건전화 전략으로 인한 정치 및 사회 불안정 증가 가능성

-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부문의 수입을 통해 공공 부문에서 안정적이고 급여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보조금 지출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실시해 옴. 경제 다각화를 통해 석유 부문의 수입이 감소하면 복지가 감소되고 공공 부문 일자리를 줄여 자국민들의 고용의 중심을 민간 부문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민간 부문은 GDP의 40.0%를 점유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노동인구의 32.0%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IMF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인 상황에서 노동인구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매년 약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임.
- 민간 부문이 고용 시장에 유입되는 청년층에게 충분한 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실업률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우디 정부는 공공 부문의 많은 일자리 기회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 다각화를 오히려 지연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사회안정

Moody's는 사우디아라비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

- Moody's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국부펀드를 기반으로 한 경기회복력과 제도 및 거버넌스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환경 및 사회 위험 등을 고려하여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으로 평가하였음.
- **(환경)**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탈탄소 정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한 물 수요 증가는 사막 기후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자원 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하며 환경(Environmental) 영향을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함.
- **(사회)**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사회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이며, 청년층 인구의 증가로 일자리 창출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효과적인 현지인 의무고용 정책 시행이 주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하며 사회(Social) 영향을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함.
- **(지배구조)** 정부가 2017년부터 실시해온 재정정책의 효율성, 강력한 통화정책 및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을 1등급(Positive)으로 평가함.

국제관계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는 관계 냉각, 러시아·중국과는 협력 확대

-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교정책 기본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는 일련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최근 수년 간 역내 정치-외교에서 대립적이고 파괴적인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받은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정책은 '역내 중재'와 '독자적 외교 행보'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의 오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향후에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국제외교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가 전보다 더 자주 마찰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안보우산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은 1930년대 첫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80년에 걸쳐 경제-정치-군사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예멘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자 양국 관계는 본격적으로 냉각되었음.
 -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OPEC+가 미국의 반대를 무시하는 감산 결정을 거듭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친중 행보를 강화하자 미국은 처음에는 격렬하게 비판했으나, 계속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독자 행보에 과거처럼 비난하거나 '힘'을 행사하려 들지 않고 있음.
-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의 연대 강화는 특히 경제 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경제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대화 파트너 지위를 얻었음.*
 - * 대화 파트너 지위는 정회원국으로 가기 전 단계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보장해줄 수 있는 거대 산유국으로,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뀜.
 - 한편,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외교간계 정상화가 중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것은 중동 지정학의 기류 변화와 그 속에서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러시아)**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산 석유 배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지위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음.
 - 지난 7월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은 원유 생산량 및 수출량 조절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협력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7월까지 예정되었던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8월까지 연장하고, 러시아도 8월부터 원유 수출량을 하루 50만 배럴 줄이기로 결정하였음.
 -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연료 수입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국가들이 늘어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저렴한 가격에 수출하는 러시아산 연료유를 국내 화력발전용으로 수입하고 있음.
- 아울러 지난 8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가 BRICS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것은 기존 BRICS 회원국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국제관계

시아파 이슬람 맹주국인 이란과 지역 패권을 두고 오랜 적대 관계이나 최근 외교관계 복원

- 수니파 이슬람의 맹주국을 자처하는 왕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 이슬람의 맹주국이자 중동 각국에 자국의 '이슬람 공화정'을 수출하려고 시도하는 이란과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을 놓고 오랜 기간 적대 관계에 있으며, 양국은 지역분쟁을 세력 확장의 장으로 활용하여 이라크, 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에서 대립하고 있음. 그 결과 중동 지역은 친미 성향의 수니파 진영과 반미 성향의 시아파 진영으로 나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대표들이 비밀 회동 끝에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선언,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이란 대사관이 7년 만에 수도 리야드에 다시 문을 열었음.
- 다만, EIU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관계 복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신은 지속될 것이며,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크게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이란의 희망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함.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려가 양국 간 긴장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상호 불신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함.

외채상환태도

리스크줄링 경험이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

- 2022년 11월 30일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원리금 잔액은 15,255백만 달러 (단기 1,067백만 달러, 중장기 14,188백만 달러)이며, 이 중 136백만 달러가 연체 중임. 연체비율이 0.95%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리스크줄링 경험이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2023.01)	2등급(2022.01)
Moody's	A1 (2016.10)	A1 (2016.05)
Fitch	A+ (2023.04)	A (2019.09)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등급 상향 및 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

- OECD는 2005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등급을 2등급으로 유지 중임.
- 국제신용평가3사 중 Fitch는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등급을 상향 조정하였고, Moody's는 2021년 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임. 이는 'Saudi Vision 2030'을 진행하면서 실행한 개혁과 재정건전성 개선, 산업다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은 재정수지 개선, 경상수지 흑자 증가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 막대한 국부펀드 규모 등을 고려한 결과임.
- Moody's는 2016년 5월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등급을 A1로 유지 중이나, 등급 전망은 2021년 11월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Fitch는 지난 4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등급을 A에서 A+로 1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건전한 재정-경상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함. 특히, 정부부채/GDP 및 국가순대외자산(SNFA)이 A등급 수준보다 위이며, 상당한 재정 완충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부연함.

-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원유 감산으로 인해 전년(8.7%)보다 크게 낮아진 0%대 성장에 그칠 전망이며,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도 원유수출 수익 감소로 각각 GDP 대비 -0%대 적자와 3%대의 흑자에 그칠 전망이다.
- 총외채의 2.7배 및 GDP의 0.7배 규모의 막대한 국부펀드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26.3% → 27.4%)과 D.S.R.(6.6% → 8.3%) 등 외채상환능력지표는 다소 악화됨.
- 'Saudi Vision 2030'에 따라 비석유 분야 개발 및 탈석유 정책을 추진하며 석유 의존적인 경제구조의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 중임.
- 한편 미국의 대 중동 정책 변화에 따라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실리 추구를 위한 다양한 협력 채널 구축에 힘쓰고 있음.